

[오늘의 온라인공연]안드레아 보첼리, '부활의 노래'

등록 2020.04.13 02:00:00



[서울=AP/뉴시스] 안드레아 보첼리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온라인에서 '부활의 노래'를 들려준다.

보첼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랜드마크인 두오모대성당에서 연 무관중 라이브 콘서트가 한국 시각으로 13일 오전 2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ndreabocelli>)을 통해 스트리밍된다. 현지시각으로는 부활절인 12일 오후 7시 공개된다.

밀라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다. 보첼리는 고국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보첼리는 최근 예배 중단으로 텅 빈 두오모대성당 내에서 오르간 연주자와 함께 둘이서만 콘서트를 열어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 관객과 신자들 없이 사전에 촬영했다.

보첼리는 이날 '생명의 양식(Panis Angelicus)'을 비롯해 희망의 가사가 담긴 아리아 다섯 곡을 들려준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서울=AP/뉴시스] 두오모대성당

1996년 발표한 '타임 투 세이 굿바이'가 국제적인 인기를 누리며 스타덤에 오른 보첼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통할 만큼 맑은 목소리로 위로를 전해왔다. 12세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음악에 대한 꿈을 향해 달려와 '희망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sfacmovie/featured?disable_polymer=1)을 통해블랙리스트 시대에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스트리밍한다.



[서울=뉴시스]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2020.04.13.(사진 =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이전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서 가장 쟁점적인 작품이자 예술검열 논란의 도화선으로 알려진 연극 '개구리'의 박근형 연출(극단 골목길 대표)이 2016년 3월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2017년 5월 재공연했다.

2015년 한국, 1945년 일본 오키나와, 2004년 이라크 팔루자, 2010년 한국 서해 백령도.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이지만 군대와 전쟁, 국가와 거대담론 아래 가려졌던 외침을 무대 위로 호출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군인들이고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죽음 앞에 놓였다는 점에서 같다. 세상 자체가 이미 전장이니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 역시 겹쳐진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결국 연극이 역사를 기억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야기와 내용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역사를 환기하는 건 문학이나 학술 등 서술 장르에 더 무게가 실린다. 연극은 무대 위 예술로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뛰어넘고 이를 결국 하나로 꿰는 묘의 힘을 지니고 있다. 15일 오후 10시까지 스트리밍된다.



[서울=뉴시스] 네이버공연이 중계하는 서울예술단 '칠서'. 2020.04.13.(사진 = 서울예술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예술단은 이날 오후 7시30분 네이버 공연채널(<https://tv.naver.com/v/13228597>)을 통해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담은 팩션 사극 가무극(뮤지컬) '칠서'를 스트리밍한다. 서울예술단이 2017년 11월 10~17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조선 광해군 시대,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도모했으나 역사의 희생양이 된 일곱 명의 서자와 이들 칠서를 모델로 쓴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을 재조명했다.

광해군 5년에 일어난 '계축옥사'가 소재다. 1613년 서얼들이 조선왕조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최초의 움직임으로 '칠서지옥'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사라지지 않은 시대의 부조리에 항거한 서자들이 일으킨 난이다. '홍길동전'의 모티브가 됐다고 알려졌다. 박영수, 정원영, 박강현 등 스타배우들이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